<2018년 6월 3일 주일말씀>

하나님의 뜻대로, 주의 뜻대로

본 문 마태복음 7장 21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, 성자의 평강과,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, 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어제는 <SS 배 평화축구대회>가 있는 날이었습니다.

지난 주 배구 대회는 19년 만에 주와 함께 뛰는 대회였다면,
이번 SS 축구 대회는 중고등부가 세상에 태어난 후 처음으로
주와 함께 뛰는 대회였습니다.

◎ 요즘 중·고등학생들은 축구에는 별 관심이 없고,
게임이나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.

그러니 축구 하는 사람들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.

그래서 그동안은 <축구 대회>라고 하지만,
친목회처럼 교회별로 뭉쳐서 축구 대회를 하거나,
작게 5:5 경기로 풋살(futsal) 경기를 했습니다.

◎ 올해부터는 체제를 다 바꿨습니다.

아무리 선수가 없어도 자꾸 만들면 되니까,

이제부터는 〈지역별〉로 뭉치게 하여
보다 전문적으로 축구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.

◎ 이번 〈SS 축구 대회〉도 하루 전에 급히 주의 뜻대로 방향을 바꾸어
〈지역별 리그〉로, 또 〈1부 리그, 2부 리그〉로 진행하여
보다 축구 대회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.

◎ 선수로 뛴 여러분, 심판을 본 사람들, 응원을 해 준 여러분
무대를 마련해 준 여러분, 모두 수고했습니다.

이번 대회는 하루 전이라도 체제를 바꾸고 주의 뜻대로 행하여,
첫 경기부터 주와 함께 뜀으로
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기쁨이 되었습니다.

◎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.
주제는 **"하나님의 뜻대로, 주의 뜻대로"** 입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**〈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〉은**
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서입니다.

이 뜻은 〈하나님이 보낸 메시아〉를 통해
세상에 전해지고 반영됩니다.

고로 〈주의 뜻〉은 곧 '하나님의 뜻' 입니다.

◆ 〈인간의 뜻〉으로는 '하나님의 뜻' 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.

〈하나님, 성령님, 성자〉만이 '하나님의 뜻' 을 이룰 수 있는데,

〈주〉가 '삼위의 몸'이 되어 그 뜻을 실행합니다.

주가 말씀하면, 〈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〉만이
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.

◆ **〈하나님의 최고 목적과 뜻〉**은
〈창조 목적을 이루는 사랑의 세계, 휴거 역사〉입니다.

이 최고의 목적과 뜻을 중심하여 - 〈크고 작은 하나님의 뜻〉이
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사에 수천, 수만 가지로 이루어집니다.

고로 **'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, 주 뜻대로'** 입니다!

◆ 모든 인생들은 저마다 〈존재하는 방법〉이 다르고 〈생각〉도 달라서
〈목적〉도 다르고 〈뜻〉도 다릅니다.

누구나 〈자기 목적과 뜻〉을 이루려 합니다.

그러나 여기에는 〈영원한 구원역사〉가 없고,
자기 목적과 뜻으로는 〈영원한 희망〉을 이룰 수 없습니다.

**그러나 〈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〉은 이상세계의 뜻이며,
영원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.**

**〈그 뜻을 행하여 이뤄 본 자〉만이
하나님과 주의 뜻을 진정 귀히 여기고 더욱 주와 함께 행합니다.**

◆ 항상 누구든지 **〈하나님과 주의 뜻대로 행해 본 자〉**만이
-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,
- 하나님의 뜻이 귀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.

이런 자들이

-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 뜻도 깨닫고 실천하여 이루게 됩니다.

◆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'자기 뜻'을 이루려고 합니다.
역시 하나님도 '하나님의 뜻'을 이루려고 합니다.

<자기 뜻>을 이루면
- '자기'로 끝나고 '육'으로 끝나지만,

<하나님의 뜻>을 이루면
- **'자기 뜻'도 이루고 '하나님의 뜻'도 이루게 됩니다.**

그것이 '육 평생, 영 영원히' 남습니다. (아멘!)

◆ **하나님은 자신의 뜻을**
시대에 보낸 구원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며,
그를 통해 그 말씀대로 핵심적으로 역사하십니다.

<이를 믿고 주를 따라 행한 자들>은
곧 '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자들'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<하나님의 뜻대로 하기>가 얼마나 어려운지,
알기도 어렵고 **행하기**도 어렵습니다.

그러나 **알면** <하나님의 뜻대로 하기>가
더 쉽고, 더 좋고, 더 이상적입니다.

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하라고,
하나님께서 이 땅에 <구원자>를 보낸 것입니다.

주의 말씀을 듣고 주 뜻대로 행하면,
그것이 '하나님의 뜻' 대로 행한 것이 되어
그리도 쉽고 좋고 이상적입니다. (아멘!)

◆ 우리는 매일 〈하나님의 뜻〉을 실천하기도 하고,
〈자기 뜻〉을 실천하기도 합니다.

〈자기 뜻〉을 실천했을 때도 좋고,
〈하나님의 뜻〉을 실천했을 때도 좋습니다.

그러나 〈자기 뜻〉을 실천하면 '하나님의 뜻' 을 실현할 수 없고,
희망도 기쁨도 '육에 속한 것들' 입니다.

◆ **〈하나님의 뜻〉을 실현하기 위해서**
6000년 동안 종교 역사를 해 왔습니다.

이제 마지막에 와서 '그 열매' 를 맺게 됐습니다!

모두 〈하늘 신부들〉이 돼서
〈하나님의 뜻〉을 절대시하고 실천하여 이같이 된 것입니다!

하나님의 섭리역사는
〈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역사〉입니다!

◆ 〈하나님의 뜻〉과 〈사람의 뜻〉은 방법이 다릅니다.

〈하나님의 뜻〉은 발전적이고, 차원 높고, 이상적입니다.

그러나 〈사람의 뜻〉은 모든 것을 행했어도
발전적이지 못하고, 이상적이지 못하고,
힘들고, 어렵고, 시간에도 쫓깁니다.

◆ <하나님이 보낸 자>는 매일 '하나님의 뜻'을 행합니다.
<행함>으로 - '그 뜻'을 매일 이루어 줘야 됩니다.
그래서 성령과 함께 책임지고 합니다.

그러나 '홀로 행함'이 아니고,
그 지체들, 곧 '따르는 자들과 함께 실천'해야 됩니다.

그래야 <뜻>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.

<주의 말>은 <하나님의 말씀>이니 항상 "아멘." 하고 행하여
매일! 매주! 매달! 올해도! 그 뜻을 이루어
아름답고 멋있고 가치 있는 삶이 연속되기를
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

◆ 매일 <하나님의 뜻>이 무엇인지 깨닫고,
항상 '하나님 뜻대로, 주 뜻대로'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.

잊으면 죽는다. - 했지요?
<하나님의 뜻대로, 주 뜻대로의 삶>을 잊으면, 자기 방법대로 갑니다.

휴거된 자들이 <하나님의 뜻>을 알고,
주와 함께 계속 그 뜻을 펴 나가야 됩니다. 믿습니까?

◆ <실천>입니다! '하나님의 뜻, 주의 뜻 실천'입니다!
<실천>은 '생명의 역사'을 낳고 '표적의 역사'를 일으킵니다.

◆ 구약시대, 신약시대는 '하나님의 뜻'을 제대로 몰랐습니다.
이제 제대로 알았으니, 그 뜻을 '실천'해야 됩니다.
주와 함께 날마다 실천할 때, '승리의 역사'가 일어납니다.

◆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.

<자기 뜻>을 실천해서

결국 지금에 와서는 '서산의 하루 해'가 되고 말았습니다.

<끝나는 역사>가 됐다는 것입니다.

섭리역사는 <하나님의 뜻>을 제대로 행하여
오늘도 힘차게 이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.

그리고 영영합니다!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◆ <사사로운 개인의 뜻>은 만물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전달되지만,
<근본의 뜻>은 '주'를 통해 암암리에 전달됩니다.

◆ 며칠 전, 둘러선 제자들 중의 한 사람이
성령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물었습니다.

그래서 성령께 여쭈니,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.

그때 한 사람이 "너무 허리가 아파서 고통이에요." 했습니다.
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픈 허리를 잡아 주고 고쳐 줬습니다.

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

"아픈 자들을 고쳐 주고 싶은 마음을
지금 너를 통해 행하여 보여 주었다.

이것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.” 하셨습니다.

◆ 이와 같이 **<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>**은
<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위대한 역사의 일들>입니다.

모르는 자들은
하나님과 성령님이 그렇게 대답하신다는 것을 모릅니다.

오직 ‘실천자’ 만 알고 감격 감사하고 뜻을 이루며 갑니다.

<잠시 쉬었다가 마무리>

◆ 지금 월명동은 한창 ‘인테리어’ 를 하고 있습니다.

지난 10년 동안 시대 십자가를 지며 조건을 세우느라,
<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통해 행하지 못한 일들>이 많이 있습니다.

지금 ‘그 일들’ 을 하고 있습니다!
이는 마지막 ‘화룡점정’ 과 같은 일입니다.

마치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를 하듯이,
<하나님의 자연성전에 최종적으로 보충하는 일>입니다.

<다 한 곳>은 더 아름답고, 더 신비하고, 더 웅장합니다.
<하나님의 뜻>대로 만들고 있습니다!
이를 깨닫고, 모두 삼위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기 바랍니다.

◆ 성부, 성자, 성령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빌면서,
말씀 마치겠습니다.